

호스피스와 전인적인 돌봄 - 영적 돌봄을 중심으로 -

황 승 주

신천연합병원 가정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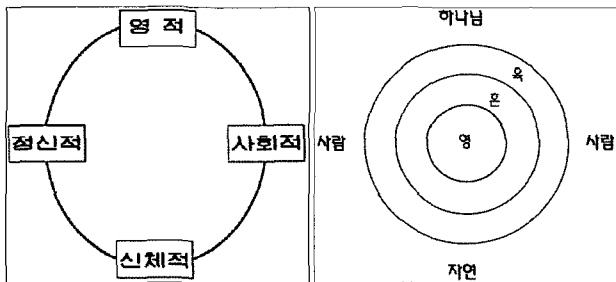
본 강의는 먼저 호스피스에서의 전인적 돌봄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본 다음, 주로 영적 돌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호스피스와 전인적 돌봄

1. 호스피스에서는 전인적 돌봄이 필수적이다.

1) 인간존재는 그 자체가 원래 전인(全人)이기 때문이다.

인간존재의 이해와 그 문제해결을 돕기 위하여 인간(전인)을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지만 각 측면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분리할 수 없는 통합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2) 호스피스 대상자는 죽음을 앞둔 생의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만의 돌봄만으로는 그 돌봄의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기존의 의료와 일반적인 환자돌봄이 신체적인 면에만 국한되거나 치중하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호스피스에서는 전인적 돌봄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인적 돌봄을 잘 수행하려면

1) 자기가 주로 관여하는 부분 이외의 돌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배워야 한다.

(예) 의사 - 심리적, 사회적(가족관계, 경제문제 등), 영적 문제도 알고 돌봄에 관심가져야 한다.

2) 호스피스 대상자의 여러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팀회의나 기타 팀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호스피스 대상자에 대한 각 측면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대상자를 돌볼 때에 늘 자신이 돌봄을 제공하는 부분이 대상자에게 전인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주의하며, 가능하면 다른 부분도 언급하여 전인적 돌봄이 촉진되도록 한다.

(예) 간호사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진통제를 주사할 경우(표 1)

호스피스와 영적 돌봄

1. 인간의 영과 영적 욕구

1) 인간존재와 영

(1) 인간은 영(영혼, spirit), 정신(마음, soul), 육체(몸, body)가 통합된 하나의 유기체로서 절대자(신), 자기자신, 타인, 자연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살도록 된 존재다.

(2) 영(靈, spirit)이란?

- 영(spirit)의 어원: 히브리어 '루아흐 ruah', 헬라어 '프뉴마 pneuma'. '바람, 숨결, 호흡'의 의미를 가지는 말로서 '생명의 본질 혹은 에너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성서대백과, 1980).

-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원리나 활력, 사람의 모든 정신적 활동의 근원이 되는 실체이다(Webster, 1978; 민중서원 국어대사전, 1995).

표 1.

간호사	태도, 말, 행위	호스피스 돌봄정도
E	아무 설명없이 주사만 놓고 가거나, “진통제 주사 봐 드리겠습니다”라고만 하고 간다.	0/100
D	“아프시다고 하셔서 이제 진통제 주사를 봐 드리겠습니다. 약 5분 후면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일 통증이 계속되거나 다른 불편증상이 생기면 연락주세요”	25/100
C	“갑자기 아파서 많이 힘들셨나봐요, 빨리 못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진통제 주사를 봐 드리겠습니다. 약 5분 후면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일 통증이 계속되거나 다른 불편증상이 생기면 연락주세요”	50/100
B	“○○○님, 갑자기 아파서 많이 힘들셨나봐요, 빨리 못 와서 죄송합니다.” “보호자님도 놀라셨겠어요.” “이제 진통제 주사를 봐 드리겠습니다. 약 5분 후면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일 통증이 계속되거나 다른 불편증상이 생기면 연락주세요.”	75/100
A	“○○○님, 갑자기 아파서 많이 힘들셨나봐요, 빨리 못 와서 죄송합니다.” “보호자님도 놀라셨겠어요.” “이제 진통제 주사를 봐 드리겠습니다. 약 5분 후면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일 통증이 계속되거나 다른 불편증상이 생기면 연락주세요.” “○○○님, 편히 잘 계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100/100

-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서, 인간의 다른 측면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특히 혼적(정신적)측면과 혼돈되기 쉽다.

- 절대자(초월자, 신)와 관계를 맺는 부분으로서 인간의 다른 부분을 통합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식하고 그 성취를 추구하는 역할을 한다.

- 인종, 문화, 가치관, 종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절대자(신)와의 관계를 내포하는 수직적(종교적)측면과, 자기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지각하는 것을 내포하는 수평적(실존적)측면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Morberg, 1984).

2) 영적 욕구: 영적 욕구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신체적 욕구, 정신적 욕구, 사회경제적 욕구, 영적 욕구) 중의 하나로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적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로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콘라드, 1985).

(1)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추구하려는 욕구;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병은 왜 생겼는가, 그것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알고자 한다. 삶의 무의미, 허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려는 욕구이다.

(2) 용서에 대한 욕구; 인간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일종의 죄책감을 느껴 용서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뭔가 뚜렷치 않아도 절대자로부터 잘못을 추궁당할 것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이기도 하다. 죄와 죄의

식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라 할 수 있다.

(3) 관심과 사랑에 대한 욕구; 신이나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이다. 특히 말기환자들은 과거에 사랑을 나누었던 이들을 매우 그리워하며 만나고 싶어한다. 인간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라 할 수 있다.

(4) 희망에 대한 욕구; 절망적 환경일수록 희망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완전한 절망을 견딜 수 없다. 조금이라도 희망의 빛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말기환자들은 현실적으로 증세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희망하며 죽음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희망을 원한다. 희망의 욕구는 절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라 할 수 있다.

2. 호스피스대상자의 영적 문제

1) 심각한 영적 고통: 건강하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에 말한 영적 욕구들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호스피스대상자는 죽음 앞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여러 가지 고통에 직면해 있으므로 잠재되어 있던 영적 문제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된다. 영적 고통이 심한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말기환자가 겪는 영적 고통의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볼 수 있다.

- (1) 죽음자체와 죽음에 수반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 (2) 덧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허무감
- (3) 병은 도대체 왜 생겼나, 무슨 의미가 있나를 알 수

없는 답답함

- (4) 절대자 대한 의심, 분노, 죄책감
- (5) 세상이나 타인에 대한 분노, 실망감, 죄책감, 남은 가족에 대한 염려.
- (6) 자신에 대한 분노, 실망감, 증오심
- (7) 홀로 고통을 당하며 죽음의 길을 가야하는 소외감, 고독감
- (8) 어디에서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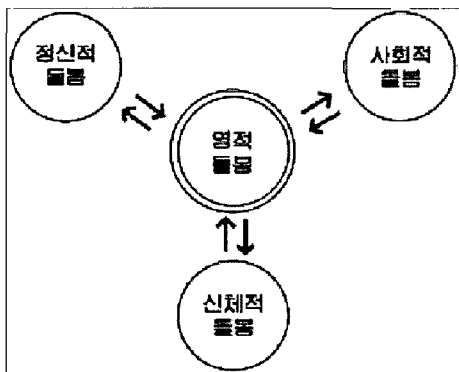
2) 영적 문제(고통)의 표현 양상들: 이러한 영적 고통은 거의 말로 조리있게 표현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경로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기환자가 하는 말보다도 그의 표정, 기분, 사고, 행동, 나타나는 신체증상들을 세밀히 관찰하여 영적 상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된다.

- (1) 신체증상을 통해서(통증, 무력증, 식욕부진, 호흡곤란, 불면증 등)
- (2) 정서적 증상을 통해서(부정, 불안, 근심, 슬픔, 우울, 분노, 고독, 절망감, 악몽 등)
- (3) 행동을 통해서(우는 것, 소리지르는 것, 치료거부, 식사거부, 면회거절 등)
- (4) 언어를 통해서

3. 영적 돌봄의 목표

- 영적 돌봄의 목표는 환자가 절대자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도와 자신, 이웃, 환경과 화해하여 영적 평안(안녕)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현재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이것은 호스피스의 핵심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 삶의 양식면에서 볼 때 영적 돌봄이란 부정적 삶의 스타일을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삶의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성환, 2004).

- 대부분은 종교를 통하여 이루게 되지만, 때로는 기존 종교와 무관하게 깊은 철학적 통찰을 통해 영적 평안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 평안(안녕) 상태'란 영적 욕구가 수직적, 수평적 차원 모두에서 충족된 극히 평안한 상태로서 환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 절대자(신)가 나를 용서하고 기쁘게 받아주셨다.
- 절대자(신)가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시고 계시니 감사하다.
- 앞으로도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갈 것이다. 나는 좋은 내세(來世)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
- 나의 이런 고통에도 좋은 뜻이 있다, 나의 삶에는 뚜렷한 의미가 있다. 현재 이런 상태에서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니 고맙다. 그동안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 나의 잘못도 용서해 줄 것으로 믿는다.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한다.
- 임종을 편안히 맞이하겠으며 거기에 대비하여 주변을 잘 정리하겠다.
- 사는 동안 뜻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가능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겠다.

4. 영적 돌봄의 방법

1) 친밀하고 신뢰받는 인간관계를 맺는다.

환자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모든 호스피스 돌봄의 전제조건이지만 특히 영적 돌봄에서 필수적이다. 영적 도움은 대부분 좋은 인간관계라는 통로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이다. 환자가 우리를 신뢰하고 편안하게 생각해야 자신의 속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영적 평안을 위한 안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와 친밀하고 신뢰받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호스피스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무슨 문제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며,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도움이 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자세로 규칙적인 만남을 지속하면 까다로운 환자도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2)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한다.

(1) 관찰과 대화

- 종교생활의 관찰: 종교서적, 종교적 상징물, 종교인들

의 방문, 기도생활

- 질문과 대화: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본인과 가족),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지금 거기서 어떤 힘을 얻고 계신가요?, 신앙적으로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 자신의 고통의 의미, 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 멍함, 무관심한 태도, 지루해함, 우울함, 무력함, 자포자기한 태도, 허망하다는 표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다 필요없어, 소용없어'

- 죄책감을 느끼며 용서받기를 원할 때 : 불안해 함, 후회스러운 표정, 죄의식을 말로 표현함, 반대로 원망, 미움, 분노를 표출하기도 함. 중요한 관계인데도 무시함.

-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할 때 : 자아연민에 빠짐, 고독한 모습, 우울, 밋살스런 행동, 다 싫다고 거부, 지나친 찬사, 관심과 도움을 호소함, 자기를 무시한다고 원망함

-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불안한 모습, 혼자 있기를 무서워함, 특정사람이나 물건에 집착함,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회피, 과장된 확신이나 명랑함을 보임

(2) 설문지 사용: 환자 본인이 직접 기록하게 하거나 아니면 면담자가 대화하며 기록한다. 면담자가 상황에 맞게 설문지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거나, Highfield (1989)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영적건강측정도구(spiritual health inventory, SHI)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이원희, 2000)을 사용해도 좋겠다(부록 1).

(3) 평가

- 영적 상태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

① 영적 위기, 문제가 심각함, ② 영적 평안을 찾기 시작함, ③ 어느 정도의 평안을 찾음, ④ 상당한 평안을 이룩함, ⑤ 지극히 평안한 영적 상태

- 종교적인 면은 어떠한가?

① 냉담, 무관심, ② 관심시작, ③ 초보적인, ④ 발전 중인, ⑤ 성숙한 신앙

-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변화가 심하지는 않는가? 개인의 특성은?

- 성장가능성은? 가족이나 주위의 지지그룹은 어떠한가?

* 각 개인에 따라 많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많은 변화와 굴곡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안녕상태에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빌리 그래함, 1999).

3) 영적 돌봄의 계획을 수립한다.

영적 돌봄의 담당자는 그 동안 파악한 환자의 영적 상태와 그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영적 돌봄의 1차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호스피스 팀회의에서 다른 팀원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계획을 확정한다. 관계하는 모든 팀원이 이 계획을 공유하고 목표를 이루는데 다같이 협조하도록 힘쓴다. 특히 의료인이 영적 배려 속에서 모든 의료활동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정대진, 2000).

영적 돌봄의 계획 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 누가 주로 담당할 것인가?: 목회자, 자원봉사자, 기타 그 환자와 특별히 영적 측면의 대화가 잘 되는 팀원

- 어떤 단계적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어떤 시간계획으로 진행할 것인가?

- 어떤 일을 할 것인가?

- 어떤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 다른 면의 돌봄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4) 영적 돌봄의 수행과 그 도구

(1) 규칙적인 만남과 대화

① 대상자가 어떤 영적 신념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그것을 지지해주고 깊이 있게 발전시켜 영적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 필요시 지지자원을 연결시켜준다(성직자, 다른 팀원이나 봉사자들).

② 영적 신념이나 종교가 없는 경우

- 대상자가 느끼는 영적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며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대상자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종교나 영적 신념 체계를 소개한다(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본인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다린다).

- 신앙심이 깊어지고 영적 평안을 이루도록 세심하게 돕는다.

③ 말보다 뜻깊은 만남, 특히 사랑의 만남이 중요하다.

- 만남의 반복 속에서 의미 깊은 진전(깊은 만남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 '사랑의 만남'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 초월적 사랑을 알게 되고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린다. 따라서 영적 돌봄의 수준은 사랑의 수준이 결정한다.

- 대상자가 충분한 사랑을 체험하면

• 영의 평안과 만족을 얻고, 자기존재의 의의를 느끼며,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된다

다. 죽음의 과정과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극복하게 된다.

-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며 여유가 생긴다.
- 육신의 고통을 이길 힘을 얻고, 불편증상들도 적어지는 것을 느낀다.

* 사랑(Agape) : 대상자 중심의, 그 사람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조건없는, 모든 허물을 덮는, 한결같은,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오래참고 견디는, 늘 긍정적으로 보는, 희망을 잃지 않는, 스스로를 살피 정직한, 필요한 시간을 내주는, 영적 통찰력(분별력, 지혜)을 갖춘

- 영적 돌봄에서 최고의 도구는 사람(나 자신)이다! - 진정한 사랑의 사람.

(2) **경전이나 기타서적을 이용;** 내용 얘기해 주기, 읽어주기, 일부내용의 복사제공, 테잎주기, 도움되는 서적제공.

(3) **기도;** 환자를 위한 개인기도, 함께 기도하기, 중보기도팀의 기도, 환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기도문 제공.

(4) **음악/예술작품을 이용;** 즐기던 음악, 영적 상태에 맞는 음악(가능하면 직접 육성으로, 함께)

(5) **종교예식;** 원하는 종교적 의무를 시행하도록 도움, 예배참가, 세례식, 성찬식 등.

(6) **자연과의 만남;** 산책, 외출, 소풍 등

(7) **축하이벤트;** 생일, 결혼기념일, 기타 특별한 날 등

* 효과적인 영적돌봄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 4가지

- ① 사랑의 체험, ② 확실한 신앙고백, ③ 용서와 화해, ④ 내세의 희망 - 사례(부록 2)

5. 주의할 점

1)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종교적 의무도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모든 종교적인 것이 영적 돌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의 비본질적인, 외적 요소를 강조하면 오히려 영적 평안을 해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영적 돌봄에 바람직하지 않다.

- 현세의 복에 초점을 두는 기복주의.
- 반대로 내세에 치중하여 현세의 가치를 무시하는 내세주의.
- 계율의 실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계율주의(율법주의).

- 교회의 제도나 의무이행,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제도)주의.

- 2) 자신의 경험을 덮어씌우지 말아야 한다.
- 3) 환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진행하며, 스스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도와야한다.
- 4)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가족들을 태도와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며 가능한 한 참여시켜야 한다.
- 6) 다른 팀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보조를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7)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 론

- 1) 사람은 영적 존재다. 영적 돌봄이 호스피스의 핵심이다.
- 2) 팀원 모두가 영적 돌봄을 해야 한다.
- 3) 진정한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다.

참 고 문 헌

1. 성경.
2. 기독교지혜사. 성서대백과 1980.
3. 노유자등. 호스피스와 죽음. 현문사 1994.
4. 퀴블러 로스. 사후생. 최준식역. 대화출판사 1996.
5. 미치 앨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공경희역. 세종서적 1998.
6. 빌리 그래함.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천국의 소망. 이현근역. 순출판사 1999.
7. 정대진. 말기환자를 위한 영적 돌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2000.
8. 이원희, 김명실, 김상희. 암환자의 영적 건강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연구. 2000.
9. 김성환. 호스피스대상자의 영적 돌봄. 호스피스 아카데미 강의안 2004.
10. 한국호스피스협회. 호스피스대상자의 영적상태와 대처방안. 호스피스총론 8장.
11. 정성덕 등. 한국판 영적안녕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2001;40(2).
12. 한영미. 호스피스환자의 영적 요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000;3(1).
13. 이필수. 호스피스에서의 영적 돌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000;3(1).

= 부록 1 =

영적 건강 측정 도구(Spiritual Health Inventory, SHI) 한국어판.

1. 나는 나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하나님(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 줄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나의 질병뿐 아니라 그의 모든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되어갈 것이라고 믿는다.
- *4. 나는 하나님(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서 내가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5. 나는 나 자신이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 의사나 간호사는 내 건강에 대한 나의 질문이나 요구를 잘 받아준다.
- *7. 나는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가 있다.
8. 나는 내가 잘못된 점이 있지만 하나님(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받아주시리라고 믿는다.
- *9. 나는 치료과정, 후유증, 재발 등에 대해 걱정이 된다.
10. 나는 이 질병으로 인해 내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11. 나는 현재 내가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해도 그들은 나를 받아 주리라고 믿는다.
- *12. 나는 내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 *13. 나는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믿는다.
- *14. 나는 하나님(또는 내가 믿는 신)에 대해 확신이 들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다.
- *15. 나는 내가 아프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16. 나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거나, 직장생활이나 결혼생활을 예전만큼 잘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 *17. 나는 치료받는 것이 두렵다.
18. 나는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가리라고 믿는다.
- *19.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이겨나가지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
20. 나는 담당 의사나 간호사가 나를 잘 돌봐주고 있다고 믿는다.
21. 나는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다.
- *22. 나는 내가 품었던 나쁜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또는 내가 믿는 신)으로부터 용서받고 싶다.
23. 나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4. 나는 사후세계의 삶에 대해 걱정이 된다.
25. 나는 나의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26. 나는 내가 아픈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27.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스스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8. 나는 과거에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이미 모두 그들에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한다.
- *29.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30.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
31. 나의 삶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역산문항

= 부록 2 - 사례 =

- 성명: 이○○ (남자/42세, 1962생)
- 병력: 2001. 5. (39세) 비인두암 진단받음, 방사선치료 50여회, 항암치료 받으며 투병생활.
 - 2004. 1. 골전이 발견되어 항암치료 5회 시행.
 - 2004. 10. 25 뇌전이 발견되어 치료불가 선언받음(잔여생존기간 6개월 선고). 이후 퇴원, 집에서 고통 중에 지냄.
 - 2004. 11. 17 응급실 통해 신천연합병원에 입원.
- 개인, 가족력
 - 형 1명, 누나 2명에 이어 출생. 2세에 모친사망, 계모아래서 아버지의 잦은 구타 가운데서 자람. 12세에 가출하여 거의 고아처럼 성장함. 고졸학력. 어머니나 형제들과 교류 없음.
 - 방송국 근무, 해외건설직 등 직장생활. 축구, 권투 등 운동 잘하고 낚시를 즐김.
 - 현재의 부인(34세)과 결혼하여 1녀(9세), 1남(6세)됨. 처가 식구들과 친하게 지냄.
 - 부인은 집사로서 교회 선교원 책임자로 적은 보수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함.
 - 성격은 내성적, 이지적, 책임감이 강한 편. 신앙은 기독교이나 형식적임.
- 입원당시상태
 - (신체적) 머리, 목, 어깨부위의 통증이 심함(VAS 9-10).
 - 침이 거의 안나오고 입이 잘 안 벌어져 불편. 식사 거의 못함.
 - 하지 부종 및 좌측 무릎관절의 부종, 동통, 운동제한 시작됨.
 - (정신적) 6개월 시한부 선고 이후 분노, 우울, 불안 등 극도의 심리적 고통상태.
 - (사회적) 부인과 아이들을 괴롭힘. 부인의 탈진. 아이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함.
 - 돕는 친척들 없음. 경제 생활의 어려움.
 - (영적) 심각한 위기, 영적 평안이 전혀 없이 고통이 심함.
- 호스피스팀의 개입과 호전(약 입원 2개월 이후, 4개월 7일 후 임종, 3/24)
 - (신체적) 머리, 목 어깨부위의 통증이 많이 감소함(VAS 1-2).
 - 식사 규칙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즐김.
 - 하지 부종 및 좌측 무릎관절의 부종, 동통, 운동제한 소실됨 - 걷기 가능.
 - (정신적) 분노, 우울, 불안 등이 거의 사라지고 평안을 유지함, 자주 웃고 대화를 즐김.
 - (사회적) 부인과 아이들과의 관계호전. 아이들이 좋아하고 병원에 찾아옴.
 - 보호 1종이므로 남은 병원비나 기타비용을 시흥호스피스에서 지원함.
 - (영적) 구원의 확신, 화해, 말김, 감사(간증), 헌신(장기기증)의 상당히 진전된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영적 평안을 이룸.
 - 존재의 의미, 용서, 사랑, 희망의 욕구 충족
- 효과적인 영적 돌봄을 가능케 했던 4가지 내용
 - 1) 사랑의 체험: 통증제거와 좌측 무릎의 호전. 봉사자들의 목 어깨 발 마사지. 아이들에게 같이 가 파티. 아들 데리고 같이 목욕 감. 야채사라다로 입맛을 돋와줌 등을 통하여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이 하나님 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 “하나님의 낚시줄에 걸렸다”
 - 2) 확실한 신앙: 회개, 영접, 구원의 확신, 규칙적인 예배참석, 성경말씀읽기, 기도생활
“종일 예수님 생각만 하게 된다. 머리는 아프나 마음은 정말 편안하다”
 - 3) 용서와 화해: 부인, 아이들과는 물론, 소원하던 누나 어머니(계모)와도 화해함(임종 1일 전).
 - 4) 내세의 소망: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게 되는 거예요”